

비디오전문지를 정기구독하는 부장님 시사지를 달마다 꼭 챙겨읽는 신입사원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포용력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회사— 현대자동차

몇개월전 박부장님이 젊음이들이 보는
비디오잡지를 정기 구독하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이유는 신세대와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신 비디오무비는 뭐고,
요즘 뜨고 있는 비디오스타는 누구고...

반면 신세대가 무조건 경박하고
감각적이라는 편견은 절대 금물이라고
주장하는 김모사원은 월간시사지는 물론,
경제지까지 골고루 읽는 시사전문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에는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치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



현대자동차

